

2014학년도 입학식

학부 2440명·대학원 526명 입학

신입생 충원율 99.9% 기록

문소연·신은재 학생 입학 선서

2014학년도 학부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 달 25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두 번 나눠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이번 입학한 학부 신입생은 모두 2440명이다. 이로써 신입생 충원율은 99.9%를 기록했다.

올해 입학식은 지난해에 이어 2월에 열렸다. 대학본부 측은 “개강일 수업 보장과 신입생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이들의 빠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입학식을 지난해에 이어 2월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허향진 총장은 입학식에서 “우리 학교는 취업률 거점국립대 2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전국 2등,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 대학 등 많은 것을 이뤄냈다”며 “제주대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신입생들을 독려했다. 또한 “고전을 많이 읽고 글로벌 감각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전 대표 문소연(국어교육과 1)씨와 오후 대표 신은재(초등교육과 1) 학생은 입학 선서를 통해 “학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해 대학의 명예를 드높이고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오전 입학식에서 신입생 대표 문소연(국어교육과 1) 학생이 입학 선서를 하고 있다.

입학식에 앞서 허향진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은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대학생활 A+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등 도서를 직접 전달하며 신입생들의 힘차고 밝은 학교생활을 기원했다.

이어 신입생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시작됐다. 먼저 ‘필류직보컬앙상블 중창’ 이 ‘오 솔레미오’와 ‘붉은노을’ 등을 부르며 신입생들의 4년간의 대학생활을 환영했다. 이후 제주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제주PMC에

서 난타 공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한편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비롯해 각 특수대학원에서도 외국인 학생을 포함해 총 526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각 대학원별 신입생은 △일반대학원 201명 △교육대학원 159명 △경영대학원 59명 △행정대학원 34명 △산업대학원 25명 △통역대학원 25명 △사회교육대학원 23명 등이다.

부찬우 기자

한국생산기술원, 제주대에 지역본부 설립

장비 제공 통해 연구개발 향상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대학교에 들어선다.

제주대학교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주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 이하 생기원)과 생기원 제주지역본부 설립·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생기원 제주본부는 2017년까지 제주대학교내(부지 1만5700㎡)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대는 건립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제주도는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절차와 애로사항 해결, 인건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생기원 제주지역본부는 향후 제주지역의



기존 산업체에 필요한 성능시험 및 분석장비 제공과 개발된 시제품의 상품화, 제품 성능향상 지원을 위한 미래제조 장비 구축 등 혁신 공용 장비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기원 이영수 원장은 “농축어업, 관광·

서비스업 등에 편중된 제주지역에는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현장밀착형 기술지원 및 산·학·연·관 R&B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생기원 제주지역본부가 설립되면 수출지원 체계 구축, 신성장 산업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추진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제주 전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설립 논의는 2012년 강창일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제주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방안으로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강경태 기자

총장추천서 받으려면 직접 본부 방문하라고요?

사라캠퍼스 학생들이 총장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 아라캠퍼스 본부를 방문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아라캠퍼스와 사라캠퍼스가 2008년 통합 이후 사라캠퍼스 학생들이 총장추천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라캠퍼스 대학본부를 방문해야 한다. 총장추천서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외부장학금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서이다.

문제는 사라캠퍼스 학생들이 외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총장추천서가 오직 아라캠퍼스 본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화북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라캠퍼스와 아라동에 위치한 아라캠퍼스 사이에 학생들의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캠퍼스 학생들은 오직 총장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아라캠퍼스로 이동해야 한다.

사라캠퍼스 관계자에 따르면 “일주일 에 한 두 명의 학생들이 외부장학금 신청 서류에 첨부할 총장추천서를 발급받으려

사라캠 학생들 불만 호소

학생 위한 행정서비스

말로만 말고 실행을...

교육대학 교학처를 방문하지만 아라캠퍼스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발급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라캠퍼스 강소연(초등교육과 3) 학생은 “총장추천서 신청서 제출 후에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은 엄연히 학생이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하지만 총장추천서를 받기 위해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아라캠퍼스까지 가야해 학생으로서의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대학은 본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총장추천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본부와 교육대학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연 기자

제9대 허향진 총장 7일 취임

오전 11시 아라뮤즈홀서

제주대학교 제9대 허향진 총장이 오는 7일 오전 11시 아라뮤즈홀에서 취임한다.

행사는 오전 11시 취임식 행사를 시작으로 아라뮤즈홀에서 내빈들과의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된다. 이후 각 초청인사를 비롯한 학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축하 리셉션을 갖는다.

한편 허향진 총장은 제주대 최초로 총장직을 연임했으며, 임기는 오는 2018년 2월 18일까지 4년간이다.

허 총장이 내세운 10대 핵심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연구역량 확보 △7+1(한 학기 해외수학 포함) 프로그램 운영 △취업률 국립대 최상위권 달성 △학술 연구비 및 국책사업 2000억원 시대 달성 △해외유학생 유치 확대 △대학발전기금 1500억원대 조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연계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교직원 처우 개선 발전기금 조성(약 200억원) △교육대학 아라캠퍼스로 이전 기반 조성 △아시아-태평양 섬 거점대학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이다.

강수빈 기자

2014학년도 전임교원 공채 3.8:1 경쟁률

언론홍보학과 16:1 기록

2014년도 1학기 전임교원 공채를 통해 9개학과 16개 분야 16명의 교수가 새롭게 임용됐다. 이번 교수공채에는 61명이 지원해 3.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언론홍보학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이론 분야에는 가장 높은 1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임교원 안도현(언론홍보학과), 박수국(생물산업학부), 배운혁(해양시스템공학과), 송우람(생물학과), 홍근표(식품생명공학과), 이연건(에너지공학과), 최수연(간호학과), 김소미(의학과), 정승욱(의학과), 박용근(의학과), 차동민(의학과), 천민석(의학과), 고수연(의학과), 송희성(의학과), 박경기(의학과), 김대경(법학과) 박소연 기자

허철구·고윤희·양덕순

〈교무〉

〈학생〉

〈기획〉

20일자 주요 보직교수 임명

지난달 20일자로 처장 및 단장급에 대한 보직교수 인사를 단행, 교무처장에 허철구(환경공학과) 교수, 학생처장에 고윤희(수학교육과) 교수, 기획처장에 양덕순(행정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에 강훈(생명산업학부) 교수, 취업전략본부장에 임재운(통신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본부장에 강영훈(행정학과) 교수, 경영사업단장에 강재경(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임기는 2014년 2월 20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2년이다.김보라 기자 관련기사 4면

사령

강경태(언론홍보학과 4)

편집국장에 임명함

김보라(관광개발학과 2)

정기자에 임명함

이상 3월 1일자

제주대신문

미래창조과학부 “개방형 ICT 융합과정” 관광융합소프트웨어 복수전공 과정 안내



신청대상

- 제주대학교 모든 학과(2014년도 기준 2, 3학년)
- 신청 학생 중 선발절차에 따라 선정된 학생



복수전공 로드맵

본 전공영역 42~57학점 + 관광융합S/W 42학점 + 교양과목 기타교과목

130학점

본인전공 학사학위 + 관광융합소프트웨어 전공 학사학위 취득
취업연계(C&D Project, 인턴십)

문의 제주대 OIC사업단
대표전화 064)754-8351
oic.jejunu.ac.kr



복수전공과정 특전

- 본 전공 + 관광소프트웨어 전공 복수학위 취득
- 복수전공과정 우수자에 대한 학사 지원비 지급(기준 장학금 수혜 가능)
- 복수전공과정 이수자에 대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전문특강, 취업세미나, 1:1 멘토링 지원
- 산업체 연계 C&D 프로젝트 수행
- 자격 취득자에 대한 비용 지원
- 각종 경진대회 참가비용 지원



졸업후 진로

다학제간 융합, 대학-기업간 융합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단순 한정된 인재보다는 미래 S/W 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진로를 다양화 할 수 있음.

1 지역 S/W 업체 및 관광 관련 분야 취업 가능

2 국내 및 외국기업의 S/W 관련 분야 취업

3 국내 및 외국에서 S/W 관련기업 창업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형 정보통신융합과정(ICT) 선도대학 제주대 OIC 사업단에서 제주대학생 여러분을 특강에 초대합니다.

이노베이션 특강

※ 신청대상: 모든 학생
※ 학 점: 3학점
※ 강 의: 매주 금 6, 7, 8교시
※ 강의평가: Pass or Fail

매주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주요 대학 교수진 및 각분야 대표와 혁신전문가를 초청하여, 블루오션을 열어가는 혁신에 관한 생동감 있는 현장 특강을 진행합니다.

강사진

손 옥 ((前)농심회장, 삼성종합기술연구원 원장, 혁신전문가)
프레다 국제전문직여성연맹(BPW) 세계회장
안중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윤대승 참좋은 여행 CEO
홍성욱 서울대 생명공학과 교수
임안순 회장(제주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고제량 여행기획가(전제주생태관광대표)
제주도 혁신기업 특강: 제주관광공사/백승/다음
스마트 IT 전문가
발명특허 전문가 등

‘글로벌 제주대’ 새내기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지난 3일 국제교류회관에서 유학생 161명 참가

제주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안녕하세요, 나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학생입니다” 말은 어눌하지만 제법 능숙하게 자기 소개를 한다. 이미 제주도에 적응을 다 끝낸 것처럼 보인다.

2014학년도 봄학기 한국어과정 연수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3일 국제교류회관에서 한국어과정 연수생 108명, 교류수학생 35명, 강사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국제교류본부(본부장 강영훈) 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한국어과정 소개 및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였다.

강영훈 본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 외국인 유학생반 담당 교사들의 소개와 국제교류본부의 프로그램 홍보 시간을 가졌다.

강영훈 본부장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언어의 장벽은 큰 문

제가 아니다”라며 “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제주대학생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주대학교는 최고의 글로벌 캠퍼스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덧붙였다.

국제교류본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국어를 보다 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어과정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영어집중교육(ELI)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하계방학 중 운영되는 ‘International Summer School(미주 지역교류대학 교수 및 학생을 초청하여 여름 계절학기에 영어강좌 교과목을 개설)’



아라뮤즈를 강의실에서 영어권 유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시험 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나 ‘Study Korea(해외자매대학생 초청프로그램)’, 각종 제주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다.

이후 중국어, 영어, 일본어, 몽골어 등 언어권에 따라 학생들을 나뉜 행사를 진행했다. 출입국 관련 사항 안내 및 유학생 보험 등의 기본 정보를 학 교수 및 학생을 초청하여 여름 계절학기에 영어강좌 교과목을 개설’

행사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평가를 받고 마무리됐다. 앞으로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에 따라 1 ~ 4반으로 나뉘어 한국어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한 외국인유학생은 “유학생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언어 문제이다”며 “한국어과정 프로그램을 열심히 수강해 빠르게 학교에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빈 기자

백두관식당 내 분식점 개점... 계절별미 계획도

떡볶이·어묵 등 판매

지난 3일 백두관 학생식당 내에 분식점이 개점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황우하 사무국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질적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분식점을 개설했다”고 전했다.

처음 분식점에 대해 논의 된 것은 지난해 12월 30일이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학교 내에 분식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개점 승인을 받았다.

이후 1월 17일부터 10일간 내부 공사가 이뤄졌다. 분식점 공사비용으로는 내부공사 1500만원, 주방기구 준비에 1070만원이 들었다.

현재 분식점에서 판매되는 메뉴는 떡볶이, 김밥, 오뎅이 있다. 떡볶이는 2500원(2인분), 김밥은 1술에 1500원, 오뎅은 1개에 500원에 판매된다.

이여 분식점에서는 아침에 식사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에는 계절에 맞게 메뉴를 바꿔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황우하 국장은 “학생 여론조사를 통해 메뉴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분식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도 잇따랐다. 허연주(간호학과 2) 학생은 “다양한 메뉴 선택권이 생긴 것 같아



백두관 식당 내 분식점이 개점했다. 현재 떡볶이(2500원), 김밥(1500원), 오뎅(500원) 등이 판매 중이다.

서 좋다”며 “특히 계절 메뉴가 생긴다며 학생들에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분식점 개점에 반색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었다. 현지선(영어교육과 3) 학생은 “학교 식당에서 파는 것 치고는 가격이 조금 아쉽다”며 “고급 재료를 써서 비싼 것보다는 보통 재료로 싸게 파는 게 더 괜찮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부찬우 기자

제주대 문화광장

5일 윈드심포니 공연

제주대 문화광장은 5일 오후 2시 대학 아라뮤즈홀에서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 허대식 교수) 초청 공연을 진행한다.

윈드심포니는 1981년 제주대에 음악교육학과가 신설되면서 관악 전공학생들로 이뤄진 관악단이다. 1987년 제1회 제주대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7차례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매년 정기연주회, 실내악의 밤, 제주국제관악제와 제주관악제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제주대 오케스트라’를 통해 쌓은 연주기량으로 도내 교향악단 및 관악단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 많은 학생들이 국내 대학원과 미국·유럽 등지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음악분야의 전문가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김보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법학전문대학원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법전원·의전원 입학식 개최

법전원 40명, 의전원 60명 입학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고호성, 이하 법전원)과 의학전문대학원(원장 주승재, 이하 의전원)이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행사를 가졌다.

법전원은 지난 3일 대강의실에서 허향진 총장 및 대학 관계자와 박재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양창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본부장, 오재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인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장, 강두철 제주은행 부행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올해 신

입생은 40명이다. 신입생들은 입학선서를 통해 “전심전력으로 학업에 정진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의전원은 지난달 28일 대학원 강당에서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신입생은 학·석사통합과정 20명, 석사과정 40명 등 60명이다.

행사에는 강성하 제주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입학식 이후 교수회의실에서 학부모와의 간담회 행사와 함께 의전원 시설 견학도 가졌다. 강경태 기자

환경보건센터, 2014 환경과 건강 심포지엄

지난달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4 환경과 건강 심포지엄 및 전시회’가 열렸다.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올바른 관리방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의학전문대학원 부설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성철)는 환경태임즈·

환경방송GKBS와 공동 주관했다.

올해로 4회째 진행되는 이 심포지엄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치유,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함이다. 강수빈 기자

제주반도체, 9년째 장학금 전달

메모리반도체 토탈 솔루션 전문가인 (주)제주반도체(대표 박성식, 옛 EMLS)는 지난달 24일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학생 8명과 통신공학과 학생 2명 등 10명에게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허향진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박성식 대표이사 등 제주반도체 관계자들이 참석

석한 가운데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반도체는 제주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와 통신공학과가 참여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제주반도체 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9년째 매해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박소연 기자



(주)제주반도체는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와 통신공학과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총 2000만원을 전달했다.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연수과정생 모집

세계환경과 섬연구소(소장 고창훈)와 (사)세계섬학회회는 2015 세계환경대학원 서귀포시 설립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14 PILS(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의 국제연수과정’에 참여할 시민과 세계의 대학(원)생, 교사를 3월3일부터 4월4일까지 모집한다.

이 과정은 오는 7월21~29일 제주대와 현장에서 진행된다.

연수 내용은 △UNESCO 국제보

호구역의 세계환경 지킴이 교육 △UNESCO 국제보호구역의 세계평화유산 지킴이 분야다.

세계환경과 섬연구소는 또 오는 5월20일까지 제5차 세계불턱법정대회와 관련 공모를 한다.

공모 주제는 △섬의 영유권 분쟁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 섬의 환경과 해양 ·제주해녀와 해양생태자산의 지속가능성 △UNESCO 국제보호구역의 관리다. 강경태 기자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특히 고전을 많이 읽으십시오.”

2014학년도 입학식사

먼저, ‘제주대 가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2014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돌보아 주신 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오늘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올해로 개교 62주년을 맞는 제주대학교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률에서 거점국립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1차년도 평가에선 ‘호남·제주권 1등’, ‘전국 2등’을 기록해 중앙언론으로부터 ‘지방편견을 깨뜨린 값진 성과’라고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4개 대학만 선정된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으로 뽑혀 해외에 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도 했습니다.

대학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27개국 179개 대학 25개 기관과 학술교류 또는 학생교류 협정을 맺음으로써 우리대학교의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대학교에서 외국대학에 파견된 교환학생수는 3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우리대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6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앞으로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되는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통해 지금까지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주대학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역동적인 제주대학교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서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는 다양한 인생 경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보낼 대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 경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학생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주제적이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학 공부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께 다음 두 가지 사항은 꼭 실천하기를 당부합니다.

우선,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 유형의 책을 두루 읽어야겠지만, 특히 고전을 많이 읽으십시오. 고전은 단순히 옛 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편적이고 학문적인 주제를 다루어 널리 읽히는 책이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류의 지침으로 자리 잡은 명예로운 저작이 바로 고전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인류 지성사의 위대한 유산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유산은 지난간 삶의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인류의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삶의 지혜와 교양은 물론이요, 학문적 성취의 기반도 고전 읽기를 통해 얻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감각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국경이 무의미할 정도로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촌입니다.

따라서 외국어 실력을 탄탄히 쌓아가는 것은 가장 기본이며, 최첨단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탁월한 전공자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열린 시야와 확실한 실력이 있어야만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당당한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4년의 대학생활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닌 능력은 아주 많은데 아직 조금밖에 꺼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활을 통해 그것을 최대한 꺼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명품인재로서의 잠재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상을 높이 세우고, 열정과 패기로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우리 제주대학교는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학금 수혜폭도 확충하고, 각종 해외연수 기회도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교수·직원·선배 등 제주대학교 가족 모두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은 제주대학교를 통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친지 여러분!

그동안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소중한 자녀를 우리대학교에 맡겨주신 믿음과 기대를 기억하면서 이들 모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돌보고 기르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자녀들을 격려해주시고, 자녀들의 배움터인 제주대학교의 발전에도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의 새 보금자리인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세계를 향해 비상을 꿈꾸는 청춘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취업전략본부, 수도권 취업지원 나서

오는 5월 말까지 운영 예정

탐라영재관 사무실 설치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는 수도권 취업을 준비하는 제주도 학생들을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는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면접을 보러가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2월 28일까지의 시범운영이 끝나

고 오는 5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제주도청의 도움으로 탐라영재관 7층에 취업 컨설팅 사무실을 설치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전연락을 통해 약속시간을 정하고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취업전략본부 관계자는 “기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서울 체류기간 중 면접, 자기소개서 등 취업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희망 기업

체 알선, 취업상담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진다.

김문규 취업지원팀장은 “상반기 공채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경기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수도권 지역에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범운영기간 동안 서울·경기권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학생이 9명 뿐”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사람들

변종철(화학과) 교수

『흔들리지 않는...』 펴내

변종철(화학과) 교수가 1일 『흔들리지 않는 건 강 99세를 위한 과학 올레길』을 펴냈다.

변 교수는 저서에서 초란, 생선, 민들레, 나팔꽃, 물 등 일상적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소재들을 표현했다.



김종훈(초등컴퓨터전공) 교수

『스크래치』 출간

김종훈(초등컴퓨터전공) 교수가 지난달 『스크래치』 책자를 펴냈다.

김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초등 창의 컴퓨터 교실 수강학생, 제주대 과학영재교육원 초등정보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스크래치 교육 경험을 통해 개발한 내용을 담았다.

스크래치는 초·중등학생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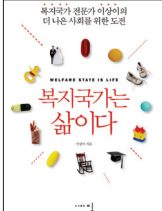


이상이(의학과) 교수

『복지국가는 삶...』 출간

이상이(의학과) 교수가 지난달 20일 『복지국가는 삶이다』를 펴냈다.

이 교수는 “우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위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역동적 복지국가’를 강조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준비
학제간 소통 가교역할”

인터뷰 허철구(환경공학과) 교무처장

▶임기동안 역점을 둘 내용.
“최근 교육부가 대학들의 최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우리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교무처장을 맡아 무거운 마음도 한편 들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단과대학 간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자 한다.

대학 특성화사업은 곧 대학 구조조정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대학의 학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발전전략과 대학의 교육과정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게 교양교육과정을 창의성·미래지향성·지역특성화 등에 맞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대학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점진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은 어떻게.
“최근 교양교육과정 발전토론회를 열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각 단과대학을 돌며 발전토론회가 이뤄졌는데,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았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다시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의견도 받을 계획이다.”

▶교수업적평가 및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에 대해.
“180여 명의 교수들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고, 2015년도부터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처음에는 교수업적평가를 위한 평가단위를 이과·문과로 나눴고, 2013년도에는 이를 개선해 학문 특성에 따라 단과대별로 구분했다. 앞으로도 최대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평가단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있을 예정이다. 학제개편과 맞물리는 시기인 만큼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집약시키겠다.”

▶국제학부와 보건복지대학원 신설은.
“특성화사업단은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특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국가지원 부문에 대학 국제화 부분이 있다. 이 국가지원에 선정된다면 국가지원 특성화사업단이 국제학부로 개편될 수 있다. 또 최근 복지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관련 학과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교육을 원하는 현업의 전문인들을 위해 특수대학원 형식으로 만들고자 한다.”

▶교수연구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은.
“대학존재의 가장 큰 목표인 연구활성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시스템화해 연구실적 향상을 장려하고 있다. 논문 게재료, 논문 심사료 등의 지원책과 승진심사, 재임용, 정년보장심사 등의 규정 강화를 통해 교수진의 연구역량이 매우 높아졌다. 실제로 5년간 연구계재실적이 두 배 이상 뛰었다.”

박소연 기자

“다양한 지역의 인재 유치
학생 복지·장학금 확대”

인터뷰 고윤희(수학교육과) 학생처장

▶취임소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학생 처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우수 신입생 유치와 학생들의 장학복지 예산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장학금 등 복지혜택 강화일 것이다. 이외에도 해외 연수 및 국내 체험 활동 지원, 봉사활동, 취업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한단계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학생복지 홍보 방안에 대해서.
“우선 캠퍼스에 설치된 모니터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혜택 및 뉴스 등을 게시할 수 있게 취업전략본부에 협조요청할 것이다. 또한 각 학과 학과장님들과 조교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각 전공별 게시판을 이용할 생각이다. 게시판마다 장학복지 코너를 마련해 장학복지 일정 등을 알린다면 다양한 정보들을 학생들이 알 수 있다.”

▶도외의 인재를 유치할 방안은.
“도내 학생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도외 학생들 유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우선 거점국립대학 공동체가 공동 주안으로 공동입시설명회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제주대 출신들이 수도권 등 도외에 많이 진출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의 협조를 얻어 그 지역 내에서 대학 입시설명회를 추진할 것이다.”

▶지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오픈캠퍼스’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해 처음 열린 ‘오픈캠퍼스’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행사 계획을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다. ‘오픈캠퍼스’는 제주대가 가진 훌륭한 인프라를 제주도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주대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차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은.
“글로벌 시대에 맞게 테마별 여행과 해외 체현 및 연수, 봉사활동 등 ‘글로벌 뉴리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장학복지 기금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배풀 예정이며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학생자치기구와의 관계에 대해.
“학생자치구와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이다. 학생처가 다리가 돼 총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부찬우 기자

“대학발전 위해 혁신 필요
합리적 기준과 원칙 적용”

인터뷰 양덕순(행정학과) 기획처장

▶연임소감은.
“기쁨보단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최근 학교를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다. 대표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입학 정원이 감축되고, 반값등록금 논쟁은 더 이상 재정을 확충할 수 없는 상태다. 우리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 뿐이다. 앞으로 대학 발전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책임감을 느낀다. 박근혜 정부는 특성화사업과 대학구조개혁 등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해 지방대학의 한계를 넘어 아시아의 명문대학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올해 기획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양과 인성을 갖춘 교양인으로 양성하는 것도 대학의 일이다. 현재는 이 업무를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기초교육원이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특성화 사업으로 전환돼 이 사업비를 유지하는 것이 기획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특성화 사업 유지를 위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입학정원의 합리적 조정 문제가 올해 기획처의 핵심적인 상반기 과제이다. 하반기는 원칙을 지켜 신뢰받는 대학문화를 만드는 데 힘 쓸 것이다.”

▶추진 사업에 대한 전략이 있다면.

“특성화사업과 구조개혁을 위해 최근 삼일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컨설팅을 받고 있다. 컨설팅을 통해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 교환으로 모든 대학인들이 공감하는 합리적 기준과 원칙하에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성과관리체계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불합리할 수 있지는 않은가.

“지금은 경쟁사회다. 때문에 경쟁 위주의 성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대학본부 차원의 도움이 없으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분야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국립대학과 사립대와 기본적인 역할이 틀리다. 기본을 보장하는 자등적 성과관리가 돼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은.
“제주도는 옛날엔 고난의 땅이었다. 지방화시대에 제주도는 세계와의 경쟁을 당당히 선언했다. 섬은 기회의 땅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열린 공간으로 변했다. 우리도 지방대학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스스로가 당당하게 아시아의 대학과 경쟁해야 한다. 우선 지방거점 대학을 이겨야 한다. 실질적인 목표는 4년 안에 이런 대학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갖고 변해야 한다.”

강경태 기자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 개편
산학융합지구 유치활동 본격”

인터뷰 강훈(생물산업학부) 산학협력단장

▶취임 소감은.
“연구력 강화와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중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산학협력단은 많은 성장을 했다. 하지만 걸어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멀다. 대학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과 변화의 방향이 주로 산학협력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의 전통적 핵심가치인 교육과 연구도 산학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포함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대학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에 단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산학협력단 9대 중점사업 중 중점 추진사업은.
“산학협력 통합 조정 및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산학융합 선도형 조직개편’과 ‘고객만족형 연구행정 지원시스템의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국책사업 유치 지원을 담당할 ‘R&D전략센터’를 이미 신설했으며, 체계적인 산학협 체제를 위해 기존 1인 부단장제 체제를 2인 부단장제 확대 개편했다. 또한 연구행정 및 지원업무를 보다 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
“현재 제주도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5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나, 이들을 연결하는 허브 기관이 없어 그동안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간 산학협력력이 부진하다. 따라서 제주도 입장에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유치해 ‘기업매출 증대-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

2013년부터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에는 유치를 위한 전략수립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 제주도가 이 사업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LINC사업 성공을 위한 노력은.
“산학협력단은 LINC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욱이 LINC사업단과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선, 산학협력단은 구축된 창업 및 기술이전 관련 자원을 활용해 LINC사업단의 세부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둘째로, 제주대학교가 산학협력친화형 대학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인사 및 평가 개선 등 학내 관련 규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

올해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제주창조경제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LINC사업단, 기업 등과 협력하여 대형국책사업의 유치 확대와 지역산업 연계 창 의 프로그램의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보라 기자

“취업수요 맞춰 프로그램 특화
취업전략본부 적극 활용을”

인터뷰 임재운(통산공학과) 취업전략본부장

▶올해 취업전략본부의 사업 방향은 큰 틀에서 설명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종료돼 그동안 지원됐었던 취업지원관련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총 3억1250만원)에 선정돼 다소 숨통이 트였다. 앞으로도 학교 예산에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발굴에 매진하고자 한다.

올해 서울 가양동 탐라영재관내에 수도권 취업지원센터를 개설했고,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수도권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취업지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INC 사업단과 협력하여 내내의 가족화사를 중심으로 졸업생들과 함께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취업지도 및 알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포럼 또는 취업박람회를 상설화해 학생들의 직업선택기회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취업률이 대학평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학 위상과 홍보에도 큰 기능을 하고 있다.

“각종 대학평가 및 대학위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큰 책임감을 느끼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의 작은 결실은 대학구성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직업능력개발원을 취업전략본부로 개편하고 총장직할부서로 격상시킴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한 취업지도를 수행한 결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LINC 사업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결실이라고 확신한다.”

▶학생취업 프로그램 가운데 최고의 성과를 보인 것과 반대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LINC 사업단과 연계해 현장실습 및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한 것이 가장 큰 결실이다. 우선 8개 단과대학에 4명의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맞춤형 취업지도를 수행한 것이 큰 성과를 보였고, 재학생들로 구성된 취업서포터스의 활약도 큰 힘이 되었다. 캐나다해외인턴, 디즈니월드인턴, 호주인턴 및 피지취업인턴사업 등이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에 도움이 됐다. 다만, 취업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했는데 성과가 미흡해 향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들에게 조언을 한다.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한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대학생활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취업전략본부는 학생들의 취업지원은 물론 진로설정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과 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검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에 언제든지 학생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대학생활의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2014학년도 제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안도현 (언론홍보학과)
조교수-매스커뮤니케이션론
△학사: 서울대 동양사학과 동양사학
△석사: Colorado State University Journalism & Technical Communication 매스컴
△박사: University of Alabama College of Communication 매스컴
최종 학위 논문명 : Does Tragic Drama Have Hedonic Value? The Social Aspects of Hedonic Motivations and Media Enjoyment

박수국 (생물산업학부)
조교수-조경학
△학사: 경북대 조경학과 조경계획
△석사: 경북대 조경학과 조경계획
University of Guelph Landscape Architecture Microclimatic landscape design
△박사: University of Victoria Geography Human thermal comfort
최종 학위 논문명: Human-urban radiation exchange simulation model

배윤혁 (해양시스템공학과)
조교수-해양 플랜트
△학사: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조선해양공학
△석사: Texas A&M University Civil Engineering Ocean Engineering
△박사: Texas A&M University Civil Engineering Ocean Engineering
최종 학위 논문명 : Coupled Dynamic Analysis of Multiple Unit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송우람 (생물학과)
조교수-식물생태학
△학사: 서울대 생물학과
△박사: 서울대 생명과학부 식물생태학(석·박사 통합)
최종 학위 논문명 : Ecological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plant, soil and leachate channel in the Sudokwon landfill, Korea

홍근표 (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식품가공
△학사: 건국대 축산가공학과 축산가공학
△석사: 건국대 축산가공학과 부산물가공학
△박사: 건국대 축산식품생물공학과 육가공학
최종학위 논문명 : Development and aplication of high pressure system as a novel technology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pork

이연건 (에너지공학과)
조교수-원자력시스템
△학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원자핵공학
△박사: 서울대에너지시스템공학부원자로열수력
최종 학위 논문명 : Development of TAPINS code for thermal-hydraulic analysisof integral pressurized water reactor, REX-10

최수영 (간호학과)
기금 조교수-기초간호과학
△학사: 가톨릭대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서울대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박사: 서울대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최종 학위 논문명 : 제2형 당뇨병 노인의 자기관리 행위 구조모형

김소미 (의학과)
기금 조교수-신장
△학사: 단국대 의학과
△석사: 단국대 의학과 내과학
최종 학위 논문명 : 라미부딘 내성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아데포비어 단독요법과 라미부딘-아데포비어 병합요법의 치료효과

정승욱 (의학과)
기금 조교수-소화기
△학사: 제주대 의학과
△석사: 제주대 의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 라미부딘 치료에 대한 24주 바이러스 반응이 없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엔테카비어 전환치료 후에 보인 치료효과 및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분석

박용근 (의학과)
기금 조교수-슬관절 및 스포츠
△학사: 제주대 의학과
△석사: 제주대 의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 정형외과 의사의 인식이 고관절 주위골절 환자의 골다공증 치료에 미치는 영향: 전향적 코호트 연구

차동민 (의학과)
기금 조교수-망막
△학사: 서울대 의학과
△석사: 서울대 의학과 안과학
최종 학위 논문명 : 삼출성내이관련황반변성 환자 와 대조군간 망수내 싸이토키인 레벨 비교연구

천민석 (의학과)
기금 조교수-피부과학(아토피, 건선)
△학사: 서울대 동물학과, 제주대 의학과
△석사: 서울대 분자생물학과
△박사: 서울대 분자생물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 흰쥐 뇌하수체 전엽 배양세포에서 GnRH 수용체 유전자 발현의 조절

고수연 (의학과)
기금 조교수-유방
△학사: 건국대 의학과
△석사: 건국대 의학과 영상의학
최종 학위 논문명 : 제왕절개 후 발생한 합병증의 인터벤션 치료법

송희성 (의학과)
기금 조교수-핵의학
△학사: 고신대 의학과
△석사: 아주대 의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 당뇨 환자의 F-18 FDG PET에서 초속효성 인슐린의 영향

박경기 (의학과)
기금 조교수-비뇨기종양, 배뇨장애
△학사: 연세대 의학과
△석사: 연세대 의학과 비뇨기과학
최종 학위 논문명 : 70세 이하의 한국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 예측에 쓰이는 기초 전립선 특이항원(baseline PSA)의 효용성 및 optimal cutoff value

김대경 (법학과)
기금 조교수-민법
△학사: 영남대 법학부 법학
△석사: 경희대 법학과 민법
△박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민법
최종 학위 논문명 : Die dogmatische Untersuchtung des gesetzlich zum Rucktritt Berechtigten

세계 최초 ‘선체통신망’ 3개 특허 획득

학술기고 해양시스템공학을 아시나요?



뺑 동 국
해양시스템공학 교수

대한민국의 산업 변천사를 보면 1970년대에는 조선/자동차 산업, 1980년대에는 원자력산업,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 산업, 2000년대에는 생명/유전공학 산업으로 변해왔다. 결국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 현재 조선 산업 1위, IT강국, 원자력 수출 등의 성과를 이루어 경제대국 10위권에 달하는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뤄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과거 변천사를 통해서 현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그렇다면 현재 생명/유전공학 산업을 이를 21세기 산업은 무엇일까?

21세기 산업은 해양/우주시대이다. 이런 면에서 현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다. 또한 세계 5위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 ‘해양전략기획단’을 출범시켰다. 2030년에는 해양수산분야의 생산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1.3%로 높이겠다고 선언을 했다. 2012년 GDP가 1.13조 USD이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2030년에는 해양수산 분야의 생산규모가 140조원 이상의 생산규모가 될 예정이다. 결국은 이러한 해양수산 분야의 생산규모는 필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유도될 수밖에 없다.

미래학자인 『더 퓨처리스트』 편집자인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2013년에 예측하였는데 이는 현재 일자리의 50% 이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직업들이 생길까? 첨단로봇, 게놈학, 에너지 저장 및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생길 것을 예측하는데 그 중에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탐사되지 않은 해양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지금도 해양수산 분야에는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해양관련 직업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해양수산 분야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1998년에 해양계측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학과가 신설됐다. 이어서 두뇌한국(Brain Korea)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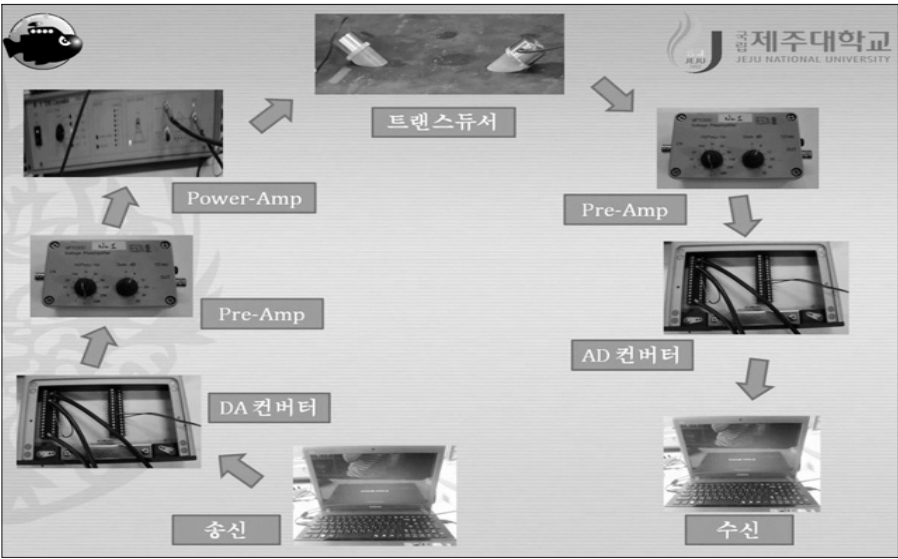
을 하면서 1999년 이후부터 해양학부 해양산업공학전공으로 통합되었다가 2009년에 다시 해양시스템공학과로 분리 신설되며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인 선박/해양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했다. 해양과학기술의 핵심기술인 해양시스템공학은 해양을 탐사하기 위한 선박이나 잠수정 그리고 해양을 개발하기 위한 해양구조물이나 해양장비 등을 설계하고 이들을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복합적이며 융합적인 공학분야이다. 따라서 본 학과는 조선공학, 해양공학, 음향학, 통신공학, 전자공학을 전공한 5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융합적인 전공 구성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조선학과나 해양학과에서도 그 필요성이나 장래성에 대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으며 그 예로 2009년도에 카이스트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해양시스템공학과를 설립하려고 할 때 본 학과의 교수진들을 초청해서 학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교류를 했다.

제주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진들은 개인의 전공분야에서 성실한 연구자로서 충실하게 연구하여 양질의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연구 분야를 융합하여 해양 혹은 조선 산업의 새로운 연구분야로 접목하여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연구에 대해서 고민해 왔다. 오랜 기간 동안 토의하고 고민한 결실로 선체통신망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으며, 세계최초로 이러한 개념으로 3개의 특허를 획득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얻은 또 하나의 결실은 2010년에 제주대학 연구부문 최우수성과로 2011년에는 종합 우수학과로 선정된 바가 있다.

◇선체통신망이란

여기에서 선체통신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IT 강국으로서 조선산업에 IT 산업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선박의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선박은 주로 철관과 철 구조물로 이뤄져 있으며 전자파는 피오프 효과로 인해서 철관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파 기반으로 선박의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전자파통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음파를 이용하여 선체의 철판이나 철 구조물을 매질로 하여 전달되는 음파의 속도에 따라 신호를 전달하고, 반사, 간섭, 회절, 산란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선박구조물을 이용한 통신망을 구성하는 ‘선체통신망(SBAN: Ship Board Area Network)’의 개념이 개발됐다.

선체의 철판에서는 판파(Lamb wave)



센서모니터링 실험 송수신 과정.

로 빔이나 지지대에서는 굽힘파(Flexural wave)나 종파 혹은 횡파로 전달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선체를 매질로 정보를 전달하되 음파-음파 선체통신망과 음파-기존의 함상망(Shipboard Network)이 결합된 통신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소 정보기술팀과 협력연구를 통해서 전파나 함상망이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통신 음영구역에서 선체 구조물을 통해 통신을 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실선 실험을 통해 본 선체통신망 개념을 현실화 했다. 또한 53kHz와 63kHz의 단일 음향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선체 외판 구조물을 통해서 100m 거리까지 2kbps 까지 문자나 영상 자료를 송수신 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아직은 최적화된 시스템이 아니라서 통신 거리와 통신 속도에도 한계가 있지만 향후 최적화된 시스템과 다중 음향 트랜스듀서를 이용하면 통신 성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실험 결과만으로도 조선소의 야드에서 블록단위의 밀폐 구역 작업에 안전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도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위탁 받은 수중소음 과제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수중소음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대학원 학생들은 세 분야의 전문 교수들이 함께 공동으로 지도하며 지식을 배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지도하여 연구하며 다학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과나 기간이 그리 많지 않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융합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또한 해양시스템공학의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습위주의 맞춤형 교육 개발

더불어 학부 교육에 있어서도 교수진들은 끊임없이 각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보다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

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습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교수들이 가르치는 과목마다 실습과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일 년에 한 번 해양시스템공학과 학술제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매 학기 하루 날을 정해서 수업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학술대회나 랩 시스템 경연 등에서 종종 큰 상을 받기도 한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수업시간에 프로젝트에서 시작되는 작품들이다. 이런 실습 위주의 교육과 훈련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받은 학생들은 교수진들이 중소기업에 추천을 해 주고 있다. 수도권의 한 중견 회사에는 4명의 졸업생들이 취직을 했으며 매년 학생들을 더 많이 추천해 달라고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10명의 졸업생들 중에서 3명이 교수진들이 추천을 해서 전망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으며 더 많은 일자리 추천이 들어 왔는데도 성실하게 교육과 훈련에 임한 학생들이 적어서 아쉽게도 좋은 추천 자리임에도 보낼 학생들이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1학년 학생들부터 학년 별로 분담해서 책임교수를 선정해서 밀착 상담을 하고 그 중에서 수업과 수행한 프로젝트 등에서 성실하고 실력을 갖춘 검증된 학생들을 학부 실험실로 편입해서 언제든지 인제 추천에 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실습선 이라호와 해양조사선 제라호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제주대학 해양과학대학의 실습환경을 활용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해양시스템공학과를 통해서 인재들이 양성되어 조선강국인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해양수산 강국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관하고 싶은 책

신뢰구축과 공동체문화 회복 위해 사회적 자본 필요성 역설

인간이 섬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적은 자원을 가지고 영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했다. 아울러 화산섬이라는 척박한 토지에 의한 빈약한 농업생산은 풍요로운 삶을 힘들게 하고, 저마다의 평등사회 지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서로를 삼촌이나 조카 등과 같은 친인척 관계로 호칭하는 게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지역사회와 펜당문화는 제주사회를 다층적 네트워크 사회로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고립된 섬이라는 제주도의 자연적, 지리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집안에 혼례나 장례를 비롯해서 관심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돕고 걱정하는 것이 관습화되는 등 모든 지역주민들을 결속시키는 강한 공동체 연결망을 형성한다. 이러한 공동체 연결망을 바탕으로 한 신뢰와 호혜의 네트워크는 개인주의와 기회주의로 가득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풀어나갈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학·사회복지학 박사인 진관훈 행정학과 겸임교수의 저서 『사회적 자본과 복지거버넌스』는 이 시대 중요한 화두가 된 사회자본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떠들썩한지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신뢰 구축과 공동체문화 회복을 주제로 물질·인적 자본에 이은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 과제인지를 일깨우고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기업, 정부 등 사회주체를 협력적인 관계로 연결하는 무형의 자본이다. 구성원들을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신뢰와 규범,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트러스트(Trust)’와 로버트 퍼트남의 ‘민주주의 제대로 꾸러가기(Making Democracy Work)’가 출판된 후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진 교수가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과제로 제시한 것은 최근 제주 사회상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발달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제주사회의 복지공동체는 점점 더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다. 또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사



진관훈 지음
『사회적 자본과 복지 거버넌스』
도서출판 각 펄먼

회복지 문제로 복지격차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어 도민통합의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교육·보건·치안·경제사회적 평등의 측면에서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인다. 신뢰가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개인과 집단 간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쉽고 범죄사 위반으로 자신만 이익을 보려는 양태 짓도 억제된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 불신과 갈등이 비등한 제주지역 사회의 현실을 사회자본 이론에 입각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 또한 도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과 시민들 간의 수평적 신뢰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제주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복지거버넌스 구축이 복지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떠오르게 됐다”고 말한다.

사회자본이야말로 경제성장, 민주화, 시민사회의 성숙과 복지사회 건설 등 널리 있는 문제들을 풀어줄 만능통치약이 된 느낌이 들 정도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들은 미디어를 통한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trust), 규범(norm), 연계망(network)간의 관계와 영향까지 넓혀가고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 요소인 사회정치적 관심과 정치참여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미래의 여군장교 첫발... 신고합니다” 여성 ROTC 첫 입단식

“처음인 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 없는데 관계없이, 제복을 입지 않아도 행동 하나하나 더 신경 쓰게 됩니다. 항상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남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학군사관후보생(ROTC) 수료 및 입단식 행사가 지난달 20일 아라무즈홀에서 진행됐다. 입단식이 분주한 와중에 조금 다른 제복이 있었다. 좌우의 옷깃을 겹쳐 두 줄로 단 단추가 아닌 한 줄의 단추를, 넥타이 대신 리본, 둥글 납작한 모자 대신 폭이 좁고 정면을 제외한 면의 행이 달라붙는 모자. 고은혜(무역학과 3), 임금빈(관광개발학과 3), 이준하(해양산업경영학과 2) 후보생이 바로 조금 다른 제복의 주인공이다.

이번 해군 입단식 중에는 여성 3명이 포함됐다. 제주대는 최초로 여성 해군 ROTC 입단식을 가졌다. 이들은 2년간 소정의 교육과정과 기초 군사훈련을 거친 후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ROTC출신이었던 중학교 시절 체육선생님과 해군장교인 외삼촌을 보며 그분들의 품성을 닮고 싶다고 생각해 ROTC에 지원하게 됐습니다.”임금빈 후보생은 오래전부터 단복을 입은 여군들을 보며 멋있다고 생각하는 등 여군으로서의 꿈을 키워왔다.

고은혜 후보생은 사극을 보다가 문득 나라를 위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두 후보생은

2012년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주도에 최초 여성 ROTC 합격자로 기록됐다.

작년에 합격한 이준하 후보생은 고3 진로탐색과정에서 해경이나 군인처럼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학과 특성상 해경을 준비할 길이 많았지만 ROTC는 1학년 때가 아니면 도전하지 못한다”며 “입단을 한 만큼 의무를 다하며 책임감과 용기 등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의 합격은 본인의 노력과 주변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주변에서는 저를 멋있게 여기면서도 동

고은혜(무역 3)·임금빈(관광개발 3)·이준하(해양산업 2)

2년간 교육과 기초 군사훈련 후 장교로 임관

“여성 ROTC 도전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시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원자가 선발되었을 수도 있는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이상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내 모든 것에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뛰어난 여군 장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임 후보생)

고 후보생은 가족보다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ROTC에 지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왜 군이 사서 고생하냐’는 반응에 울컥하기도 했다”며 “군

인들의 노력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생은 “이제는 모두들 여성 ROTC지원이라는 결정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말을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 후보생의 어머니는 꿈이 여군이였다고 한다. “ROTC 지원과 합격에 정말 기뻐하셨고, 당시의 꿈인 것처럼 저의 꿈을 응원해주셨습니다.”라며 “같은 과 학군단 선배님은 책을 제공해주어 이론적인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여성 ROTC를 지원했다 안타깝게 떨어진 경험

이 있던 학과 선배님의 응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처음인 만큼 잘 해보라며 교수님들도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세 후보생 모두 ROTC준비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질문에는 ‘같이 입단한 동기와 제주대 학군단 선배님들’이라는 대답이 빠지지 않았다. 임 후보생과 고 후보생은 동기인 만큼 서로를 격려했다. “각자가 보이면 그 뒷모습을 보고 뛰고, 보이지 않으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며 뛰었습니다.”

ROTC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모여 체력단련에 도움을 주는 등 학군단의 지원도 많았다. “학군단 선배님들께서 학군단 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체력검정을 잘 볼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뛰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라며 입모아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도움 덕분에인지 ROTC 준비에 있어 “여자라서 힘든 적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고 후보생은 “처음부터 체력 조건이 맞아야 ROTC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ROTC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군단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체력을 기를 기회도 있었다”고 말했다. 임 후보생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여군들이 많이 뒤처지기는 하나 노력한다면 극복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고충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3명의 후보생 모두 “요즘은 점점 여군의 수가 늘어나 여군에 대한 복지와 시설들이 점점 좋아지는 추세라 딱히 ‘여군’이기에 힘든 것은 없었습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학군단 생활에 앞서 고 후보생은 여군이라기보다는 한명의 군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고 후보생은 현장에 나갈 준비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 존경하는 사람으로 충무공 이순신을 꼽으며 “직접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훈



지난 20일 오후 아라무즈홀에서 ROTC 입단식이 열렸다. 첫 여성 ROTC 입단식을 가진 고은혜 후보생(가장 왼쪽부터), 임금빈 후보생, 이준하 후보생.

련에 매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임 후보생은 “장교가 멋있어 보이는 것은 그만큼 회생을 간대하기 때문”이라며 “외향적인 면 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대를 이끌어 나가는 장교가 될 수 있게 훈련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자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여군 장교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이 후보생은 “처음인 만큼 개인적인 행동이라도 ‘여 후보생’의 행동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여 선배님들과 함께 ‘여 후보생들을 정말 잘 봤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성 ROTC를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을 보냈다.

“ROTC와 관련한 꿈이 있으면서도 지원하기 전에 겁을 먹고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을 처음부터 갖춘 사람들만이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학군단 선배님들을 잘 따르며 훈련하면 체력은 갖춰집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어 그들은 “도전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니 뜻이 있다면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며 여성 ROTC를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와 동등하게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연기자

»신문방송사 학생기자 4·3 유적지 순례

슬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 원형 보전·계승해야

4·3 평화공원 및 선흘·북촌리 일대 순례

“희생자들의 아픔 잊지 않겠다” 한 목소리

신문방송사는 지난 21일 대학원론 학생기자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방과 분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인 제주 4·3에 대해 바로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제주도에 4·3유적지 탐방을 다녀왔다. <편집자주>

◇제주 4·3 평화공원

봉개동에 자리잡은 제주 4·3 평화공원은 비극의 현장이나 수난의 장소는 아니지만, 4·3 당시 희생된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원이다.

제주 4·3 평화공원은 2003년 기공식을 갖고 개원했다. 4·3의 국가적 과오에 대한 사과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2006년 4월 이곳에서 열린 제58주년 위령제에 다녀갔다.

4·3이 60주년을 맞은 2008년 3월에는 제주 4·3평화기념관이 역사적인 개관을 했다. 개관 첫해인 2008년 12만3382명, 2009년 13만7969명, 2010년 20만2026명이 관람했다. 이처럼 공원 관람객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주변에 절물자연휴양림, 노루생대관찰원, 돌문화공원 등의 관광지가 많아 한꺼번에 둘러보기가 쉬운데다 사업소 측이 단체 관람객 유치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4·3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는 위령탑은 멀리서부터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위령탑은 마치 오름 경상의 굽부리(분화구)처럼 움푹한 곳의 중심에 들어서 있다. 굽부리 같은 곳의 가운데로는 산정호수를 연상시키는 작은 연못이 있고 연못 중심에는 위령탑이 세워져 있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4·3 희생자들의 각명비가 마을별로 새겨져 있다.

위령탑을 지나 긴 계단을 오르면 추념광장으로 들어선다. 광장의 남쪽에는 희생자의 영령을 추모하고 제를 올리는 위령제단이 눈에 들어온다. 반원 형태의 아치조형물의 내부는 위패봉안소이다. 벽면이 은통 희생자 이름으로 장식되어 있다.

◇선흘리 목시목굴

선흘리 목시목굴은 80명에서 100명 정도 내외의 선흘리 주민들이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자 숨어 지낸 곳이다. 동굴은 수풀 속에서 있어 자세히 살펴보기 전까지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사람 하나도 들어가기 벅찬 동굴은 길이가 100m 정도다.

옹양이 흐르다 굳어 바닥이 울퉁불퉁해 사람이 장시간 거주하기엔 부적합한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 은신했던 많은 주민들도 영화 ‘지슬’에서처럼 토벌대의 손에 끌려 나

와 죽었다. 전날 발각된 ‘도틀굴’에서 끌려간 주민이 ‘목시목굴’의 존재를 자백하고 위치를 안내했다. 군인들은 동굴 밖으로 나오는 주민들과 이곳을 안내한 주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한다.

◇낙선동 4·3 성

초토화 작전 이후 살아남은 주민들이 낙선동에 돌로 성을 쌓고 집단 거주를 했다. 이러한 성들은 무장대의 공격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었다. 산간마을 물론 해안마을까지 제주 대부분의 마을에 세워졌다. 이는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감시와 통제하고, 무장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주민들은 산담과 밭담의 돌로 마을 안에 성을 쌓았다. 1954년 통행제한이 풀리며 대부분의 성이 산담과 밭담으로 원상 복구했지만 낙선동 성터는 주변 과수원의 방풍 역할을 해 잘 보존됐다. 성 안에는 주민들이 겨우 들어가 잠만 잘 수 있는 함바집을 지어 집단 거주했다.

성은 통행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했고, 주민들은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며 성을 지켰다. 당시 젊은 남자들의 많은 희생으로 성은 마을 여성과 노인들이 지켰다. 2009년 성담을 정비하며 일부 복원이 이뤄졌다. 해자, 함바집, 정문초소, 경비마루, 통시, 경찰지서, 보초대기소 등이 복원됐는데 원형과 달리 넓고 든든한 모습으로 복원을 해 문제가 많았다.

◇북촌리성

북촌리 마을사람들도 선흘리 사람들처럼 1949년 봄부터 성을 쌓고 모여 살았다. 당시 현재 마을회관 맞은편에 경찰과전소를 지어 10명의 경찰이 3년 동안 성을 쌓고 지키는 일을 통제했다. 15개의 보초막을 설치해 남녀노소 관계없이 근무를 했다. 북촌마을에서 북촌초등학교로 이동 중 발하나가 있다. 이 발 이름을 ‘당팻’이라고 한다. 4·3 당시 북촌초등학교에 마을주민들이 모아놓고 군경 가족만 빼놓고 학살한다. ‘당팻’이 그때 북촌리 마을주민의 학살터이다. 지금도 발을 갈다보면 탄피가 근래까지 계속 나온다고 한다.

◇북촌초등학교

북촌초등학교는 1949년 1월 17일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의 무대가 되는 곳이다. 소설 속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500명이 채 안 된다. 이날



죽은 사람은 380명 정도가 되고 북촌리에서 4·3 희생자는 480명 정도 된다. 당시 군인들은 이곳에 주민들을 다 모이게 해서 군인과 경찰가족을 제외해 총을 쏘서 학살했다. 군장교가 장병들이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격연습을 제안해 학살이 이뤄졌다. 북촌은 4·3 때의 제주에서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이 죽은 곳이다. 북촌은 정말 4·3에 있어 상징적인 마을이다.

5년 후 북촌에서 학살의 기억이 가시지 않은 채 ‘아이고 사건’이 발생한다. 북촌초등학교에서 전쟁 후 전사자의 장례를 치루는 도중 이장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4·3때 희생된 사람도 함께 추도를 한다. “아이고, 아이고”하며 대성통곡을 했다. 이를 알게 된 제주경찰서는 4·3을 얘기했다고 이장과 마을주민을 조사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옴팡발과 너븐송이

우리 사회에서 금기였던 4·3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것은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다. 78년 ‘창작과 비평’에 발표돼 4·3의 비극을 사회에 인식시켰다. 소설에 나오는 순이삼촌은 학살사건 때 시체더미를 헤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왔다. 그 후 30년이 지나고 자신이 죽어야 할 ‘옴팡발’에 돌아와 독약을 마시고 자살한다. 소설에서 ‘다만 30년 전 그 옴팡발에서 구구시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예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같이 이곳에 있는 비석들은 소설에 나오는 대목들이 적혀있다. 시체가 널브러진 것처럼 비석들을 표현했고, 한 곳에는 소설 속 ‘순이삼촌’의 두각을 형상해 놓았고 ‘순이삼촌비’가 세워져 있다. 학살 당시 학교 운동장에서 서쪽으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여기서 희생됐다. 소설 속에서 중요한 장소로 부각돼 북촌리 학살 사건의 상징적인 무대가 됐다.



신문방송사 학생기자들은 제주 4·3 유적지 답사를 다녀왔다. 사진은 ‘순이삼촌’의 무대가 된 너븐송이 공원에 옴팡발 순이삼촌 비석(위)과 북촌리 4·3희생자 위령비(아래)

옴팡발 서쪽으로 얘기무덤 20여 기를 볼 수 있는 ‘너븐송이’가 있다. 이전부터 병에 걸려 죽은 아기를 묻던 이 너븐송이 일대에서 군인들은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한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시신을 이곳에 임시매장하고 추후에 안장하려 했으나, 어린이와 무연고자는 임시 매장한 상태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옴팡발과 얘기무덤은 ‘너븐송이 4·3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이날 학생기자들은 4·3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곳에 안내한 조차 없이 방치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박소연 (인문홍보학과 2) 학생기자는 “옛날에 많은 도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아파했던 사실을 다시한번 알게 됐다”며 “4·3을 묻어버리던 안되고 아름다운 풍광 속에 담겨진 4·3의 진실을 찾아 보존·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태 기자

아라초대석 <2> 전은자 이중섭미술관 큐레이터

“고유의 색 잃지않는 문화공간 만들것”

제주도 서귀포 이중섭 거리에 위치한 이중섭미술관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그 사이에 눈을 반짝이며 이 화백의 그림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한 여성분이 있다. 바로 전은자(이중섭미술관 큐레이터)씨다.

사실 큐레이터는 아직 사람들에게 친숙한 직업은 아니다. 최근에 영화 등을 통해 그 이름이 전해지는 정도이다.

“큐레이터, 학예사라고도 불리는 제 직업은 쉽게 설명하자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총책임자라 생각하시면 쉬워요.”

전씨는 2007년부터 이중섭 미술관과 함께 동행하는 중이다. 미술관의 역사는 2001년 이중섭 화백의 거주지 인근을 매입해 ‘이중섭 전시관’이란 이름으로 시작됐다.

“그 당시에는 미술관에 작품이 하나도 없어서 전부 복사본으로 전시를 했어요. 하지만 2개의 갤러리에서 이중섭 화백의 그림 9점을 포함해 총 120점의 작품을 기증받으면서 1층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죠.”

이후 미술관은 자체적으로 10억의 예산을 들여 이중섭 화백의 작품 2점을 구매하는 등 발전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전은자씨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먼 곳을 내다봤다. 이중섭미술관을 중심으로 서귀포 지역에 문화공간을 만들 생각을 한 것이다.

이중섭미술관 근처에는 ‘이중섭 거리’란 명칭을 지닌 공간이 있다. 전씨는 거리 주변과 이중섭미술관을 통틀어 운영할 프로그램을 고민했다.

“주변 거리를 문화 예술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죠. 하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과 오랜 연구 끝에 지금은 작가의 산책길(이중섭미술관 주변 명소를 도는 올레길 코스)이나 아트마켓, 그리고 각종 미술체험 프로그램 등이 자리 잡았어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이중섭 거리는 주변 상권과 미술관 관람객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그리고 점차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전은자씨는 이에 걱정이 늘었다.

“최근 서울의 인사동 거리가 옛날만 못하다는 말이 많아요. 옛날에는 필방이나 전시공간들로 꾸며진 거리가 한국적인 맛을 표현하기에 그만이었죠. 하지만 보여주지식 발전에 급급한 나머지 거리의 본질이 변색됐어요. 저는 짧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문화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문화공간이 발전을 하면서도 특유의 색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중섭미술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중섭 거리에서 관람객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이화백의 ‘생가’라는 결과가 나왔다. 사람들이 이중섭이 살아온 채취와 그때 당시의 느낌을 받고자 이곳을 찾는다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서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관광지마다 라스베가스라든가, 디즈니거리가 있다면 중국을 찾을 이유가 있겠어요? 중국 음식점을 갔는데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나오는 셈이죠.” 이에 이중섭 미술관에서는 전은자씨의 여러 전략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반드시 미술관을 방문한 관객에게만 기념품을 판매한다든가, 기획전시전에는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가들의 작품만을 선보인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에요. 이중섭미술관만의 독특함 때문에 이곳을 다시 찾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어느덧 전은자씨는 이중섭 미술관과 7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그녀는 큐레이터 생활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이중섭 화백의 부인을 직접 만나 이 화백의 파레트를 건네받은 일이라고 했다.

“이 화백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이중섭 화백을 기억할 물품이 파레트가 유일했어요. 그런데 미술관을 위해 파레트를 기증한다고 직접 찾아오셨을 때는 정말 꿈을 꾸는 듯했죠.”

서울 출신인 전은자 큐레이터는 어릴 적에 미술가를 꿈꿨다. 그녀의 잊고 있던 꿈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 준 사람 또한 큐레이터였다. 하지만 하나의 미술관을 책임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녀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을 하고 싶을 뿐이라며 말했다. “사실 큐레이터를 택한 이후로 생각보다 훨씬 신경쓸 것이 많아서 힘든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주도를 위해 미술 작품을 기획전시하고 관람객들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주는데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강수빈 기자

라운은 ‘즐겁다’는 의미의 순 우리말입니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라운그룹은 제주의 기업입니다.
라운가족은 현지 법인화를 통해 지방세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라운 임직원 369명 중 97%인 358명이 제주출신입니다.
모기업인 라온건설도 제주현지 법인입니다.

연간 20억원에 이르는 라온골프클럽, 라온프라이빗타운
농·축·수산 식자재도대부분 제주산입니다.

라운그룹은 라온골프클럽과 라온목장, 더마파크, 라온프라이빗타운,
라운호텔&리조트, 라온투어, 라온명품관 등의 관광사업을 통해
제주 서부권을 국내 최대 체류형 휴양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라운가족은 앞으로도 제주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써,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RAON GOLF CLUB
라운골프클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18번지
TEL 064-795-1000 FAX 064-795-1001

RAON PRIVATETOWN
라운프라이빗타운

라운프라이빗타운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금능남로 127
TEL 064-795-8008 FAX 064-795-8051

The馬PARK
더마파크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월림리 산8번지
TEL 064-795-8080 FAX 064-795-8081

RAON名品館
라운명품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TEL 064-795-3200 FAX 064-795-3209

RAON TOUR
라운투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18번지
TEL 064-796-9651 FAX 064-796-9654

교수시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글

고독을 사랑하라

동문칼럼

매력적인 도전의 무대
제주관광산업에 관심을



강영훈
행정학과 교수·국제교류본부장

“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고 유학이
자신을 새롭게 탄생시킬
기회임을 명심하길...
”

필자는 1978년에 제주대학에 입학하였다. 당시 대학이 주는 캠퍼스의 낭만과 더불어 젊은이들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불협화음 시대의 현실적인 문제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그러던 어느날부터 자신에 대한 굴욕감과 패배감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고독을 사랑하지 못한 나는 깊은 자괴감에 자신을 찾을 수 없던 날들을 보내었으나 행정학과와 의 원로교수님을 찾아뵈면서 나의 인생은 다시 고독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

1985년 어느 날, 많은 고민 끝에 일본에서 지방 자치를 공부하여 한국 현실에 많은 것을 접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도일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유학의 길은 시작되었고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학문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 그 후 다시 호주와 미국에 유학을 감으로써 많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야만 했다.

여기서부터는 필자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대학에 유학으로 왔있는 600명의 학생들과 장단기 교환학생 또는 인턴 등으로 해외에 나가기를 희망하는, 혹은 현재 계획 중인 학생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어 습득과정을 즐겨라. 필자는 유학을 경험으로 영어, 일어는 할 수 있으나 현재 국제

교류본부장을 하면서 가장 많은 필요성을 느낀 것이 중국어였다. 그래서 중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필자가 얼마나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유학생이든 재학생이든 비교해보길 바란다. 우선, 보통 아침 새벽 4시 반에 기상하여 운동을 시작하면서 KBS 중국어강좌를 듣고 6시가 되면 English pops를 매일 1시간씩 듣고 있다. 출퇴근시간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중국방송을 듣고 있으며, 심지어 주말에는 CCTV (중국국영방송)국제방송에 몰두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외국어가 내 몸을 떠나지 않도록 즐겨야만 배우면서 기억도 오래 남는 것 같다.

둘째, 많은 것을 생각하지마라. 필자가 처음 유학을 결정할 때는 당시 제주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았고 유학이 마치 온가족에게 빚을 지우고 큰 짐을 떠안고 떠나는 사람처럼 몹시 괴로웠다. 유학생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제주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전공공부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사회에 봉사할 것인가에만 신경 쓰고 연구에 매진하면 될 것 같다.

셋째, 그 나라의 문화를 맛껏 사랑하라. 처음에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학생과 이야기기할 때는 항상 내가 배웠던 지식이 가치기준이 되어 배타적

으로 문화를 보는 네거티브한 생활이 지속되면서 유학에 대한 정열이 식어가기 시작한 적도 있다. 항상 자기가 처해 있는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며 우리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기 초에 재학생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국어 도 우미 친구와도 함께 활동한다면 유학생생활에 긍정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고독하다. 릴케는 현대인이 바쁘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으면서, 마치 바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는 것처럼 자기만의 시간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고독한 시간’이라고 하였다. 혁명가인 체 게바라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꿈 하나를 별처럼 품자, 가슴속의 별이 인젠가는 실현되기를 바라며 현실 속에서 분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아니 젊음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학생들이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고, 유학이 자신을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며 정진하기 바란다.



이영수
법학과 93학번
제주관광공사
경영지원 차장

지구촌의 보배로, 세계인의 가슴에 감동을 전하는 제주. 제주는 어느새 세계인이 감동하고 사랑하는 글로벌 ‘러브마크’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우리 제주사회는 관광산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함께 이뤄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외국인관광객 233만여명을 포함해 1085만명을 넘어서는 등 제주관광 반세기 역사 이래, 최초로 국내의 관광객 1천만 시대라는 메가투어리즘 시대를 맞이했다. 크루즈관광객도 38만명을 돌파하는 등 제주관광의 도약은 커다란 이슈 메이커였다.

메가투어리즘 시대에 접어들어 제주관광은 지금도 다양한 이슈 속에서 생태계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제주관광은 중국인관광객 주도하고 함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극동아시아 등으로 ‘제주관광의 해외영토 확장’을 추구하고 있고, 미주와 유럽에서 꽃을 피웠던 크루즈관광은 빠르게 아시아로 무게중심이 이동 중이다. 힐링과 웰빙, 체험, 개성을 중시하는 관광 트렌드의 변화는 대세며, 소셜네트워크(SNS) 중심의 온라인·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고도화는 관광산업의 급속성장을 떠받치고 있다.

여기마다 천혜의 자연과 환경을 바탕으로, 생태, 휴양, 문화, 마이스(MICE), 레저스포츠 등이 생산적으로 조화를 이뤄내고,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산업간의 창의적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진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류에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7대자연경관’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는 세계인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및 트렌드의 변화와 세계 관광시장의 총성없는 전쟁 속에서 ‘제주관광의 고부가가치화’는 1천만 메가투어리즘 시대의 과제이며, 하이라이프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관광산업은 매력 있는 도전의 무대라고 권하고 싶다. 관광산업과 여타 산업간의 생산적 융복합,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인문학적 가치 등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하여 부가 가치를 잉태하는 산업의 진화 속에서 단언컨대 창의적, 감각적, 그리고 감성적 재치와 아이디어의 주인공은 미래 경쟁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경제, 창조관광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산업간의 융복합, 기존 가치와 새로운 가치와의 공존, 그리고 공유와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과 탐구정신을 갖는다면, 관광분야로서의 진출을 권하고 싶다.

제주관광 진흥 공기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우리 제주대 후배들도 제주관광산업의 진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소망한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소속,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 5천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press@jejuu.ac.kr
문의 : 제주대신문 편집국 754-2277 ~ 2279

독자기고

나를 찾아 떠난 세계교육기행



강휘진
초등교육학과 2

에서 천안문과 자금성을 보며 대륙의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부푼 마음을 안고 파리에 도착했다. 도착했을 때 파리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파리의 밤거리는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다음 날 베르사유 궁전을 갔다. 프랑스 절대왕권의 막강한 힘이 얼마나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고 그 곳에서 연회를 열어 즐겼는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었다. 겉보기부터 아름다운 조각들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궁전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어서 내부로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다. 궁전은 넓고 아름다웠다. 그런 궁전의 모습이 지난날의 프랑스 왕정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아름다운 궁전의 모습 속에서 고난했던 프랑스 시민들의 모습이 투영됐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했지만 그 아름다움에 숨겨진 시민들의 삶이 보여 안타깝기도 했다.

다음은 스위스였다. 그곳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통해 인터라켄의 푸른 하늘을 밟았다. 눈이 수북이 쌓인 위로 날며 스위스의 호수를 보고, 마을 위로 날고, 찬바람을 맞던 그 기분은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생생히 남아 있다. 처음으로 날아보는 하늘이었다. 그 동안의 내 시각이 땅에서서만 비롯됐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시각은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동안 내가 봐왔던 것들이 세상의 일부뿐이었다는 걸 느끼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게 됐다.

마지막으로 여정의 끝인 이탈리아다. 베니스의 풍경은 시간의 흐름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 그 령기에 많은 것을 둘러볼 시간이 줄었지만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준 기쁨에 젖어 우린 그저 행복했다.

여행은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았다. 그러나 여행을 통해 여유를 느끼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 여유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느꼈다. 시간을 맞춰 살기에만 바빴던 플랜맨(Planman)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배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경험히 가져다주는 효과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마지막 여행을 끝내고 유럽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이 여행은 나의 첫 시작일 뿐이니까.’ 이번 여행이 내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느꼈다.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이 기회를 다른 학생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김정희
간호학과 3

“응급환자입니다. 양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심장이 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응급차 양보에 대한 시민의식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방송편은 ‘남’을 도와주려다 한쪽 다리가 사이에 끼여 절단되어 응급후송 되던 이모씨다. 신체가 절단되었을 경우 복구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6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응급 수송차는 11km의 거리를 5시간 30분이나 걸려 도착하고 집합 수술은 실패했다. 이 시간은 응급 환자를 싣고 있는 응급차가 그 도로에 있던 일반 차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냥 차’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예능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 시민들은 앞만 보는 삶을 살고 있었다. 자신의 가족이 응급차 안에 있을지 모르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차 안에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응급차의 앞을 가로 막고 있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알’만 보았다. 너무 열심히 ‘알’으로만 가느라 ‘뒤’나 ‘옆’을 봐 응급 환자들을 도울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목적지만을 향하는 그 운전자들 사이에서 응급차는, 그리고 그 응급차 안에 있는 보호자와 응급환자는 1분이 1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문제점이 더욱더 화두가 되고 있는 점은 다른 나라의 응급 수송시 동영상과의 다른 점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차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져 응급차가 빠르게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나는 우리나라와 응급 선진국의 차이가 ‘공동체 의식’의 유무라고 생각한다. 응급 선진국의 시민들은 위에서 거론했듯이 저 응급차 안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더 신속하게 양보를 해주었을 거라 생각한다. 반면의 우리나라 시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응급차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작을 수도, 를 수 수도 있는 연결고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보자. 외진 곳에 있는 주택가를 보면 응급차,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도로의 폭이 좁거나, 좁은 도로인데도 불법주차가 되어있는 차들이 있어 응급차,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함과 동시에 질 높은 도로시설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계속 낮은 시민의식을 갖고 응급차, 소방차의 주행을 막는다면 그들은 결국 총을 자기 자신에게 겨누고 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느낄 것이다. 그 전에 자신의 시민의식을 고양 시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손을 얹는다면 얼마나 풍족한 나라가 될까. 우리 지역에서는 한시가 긴박한 응급상황에 아름다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지 바란다.



당신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획·디자인에서 인쇄까지 ONE-STOP 공정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최상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신우기획 / 도서출판 신우
상담전화 (064) 746-5030

• 제주시 오라3동 2988-4
• E-mail : sw5030@hanmail.net

2014년 새롭게 바뀌는 제주대 캠퍼스



수의과대학, 친환경농업연구소, 음악관, 생명자원과학대학 본관 신축
체육관 리모델링 중, 생명자원과학대학 1·2호관도 리모델링 예정

2014년 신학기를 맞아 노후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사무국 시설과(과장 김재석)에서는 "작년 의학전

문대학원 건물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수의과대학과 말산업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의과대학 건물은 인문대학 2호관과 동물병원 중

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말산업센터는 폴리텍대학 동측에 있는 목장부지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또 생명자원과학대 본관은 감귤화센터 남쪽에 신축하며 3월에 공사계약 요청을 할 예정이다. 기존의 생명자원과학대 1호관과 2호관은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생명자원과학대학과 야외음악당

사이에서는 친환경농업연구소가 지어지고 있다. 같은 예술디자인대학 소속임에도 각자 떨어져있던 음악관과 미술관은 음악관이 이전하면 가까워질 전망이다. 음악관 건물은 의학전문대학원과 미술관 사이에 신축해 올해 설계 완료 예정이다. 오는 10월 28일 개최하는 제95회 전국 체육대회를 앞둔 체육관 건물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이다. 박소연 기자

>> 교수 출신 만학도 신재경씨

“늦은 나이에 공부할 수 있다는 열정 보여줄게요”



당당한 큰 키에 하얗게 센 머리카락, 고집센 눈을 가진 노인 이 학생이 꽤 흥미로운 강의를 안으로 들어선다. 모두가 긴장하며 노트와 펜을 든 순간 노인은 책상 뒤에 앉아 태연히 교과서를 꺼낸다. 답소리, 학생이 란다.

올해 중어중문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광경이 아닐까. 사람들은 흔히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신씨에게는 아마 ‘배움에는 끝이 없다’ 정도가 어울릴 듯하다.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신재경(60, 중어중문학과 3학년 편입) 씨를 만났다.

“교수까지 지낸 사람이 어쩌서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왔나고요? 사람이 배우고 싶으면 학교를 가자 어디를 가야합니까?”

단순히 중국을 알고 싶어서 모든 걸 홀출 털어버리고 다시 대학을 다닌다는 신씨.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는 덧붙였다.

“늘그막에 제주에서 편히 지내려고 왔더니, 제주에선 중국말을 할 줄 알아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신씨의 삶은 단어 그대로 ‘다양’했다. 한양대에서 공학을 공부해서 생산현장인 공장에서 5년간 엔지니어를 했다. 결혼 후에는 일본 유학을 택했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친 93년부터 일본대학에서 전임강사로 교수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 교토 소재이대학과 성미대에서의 21년간 교수생활을 마치고 다시 학생으로 변신했다.

교수라는 직업에 미련이 남을 법도 한데, 학생이 된 것이 마냥 즐거운 듯 그는 웃었다. 그 모습이 마치 새내기 신입생이 첫 강의를 기다리는 듯했다.

“일본대학에서는 나처럼 늘그막에 대학을 다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다. 소위 ‘사회인 대학생’이라 하는 그들이 제주에서는 생소할 법도 해요. 학생들을 평가하던 사람이 이제 다시 교수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게 무척 기대됩니다. 물론 제가 교수 출신이라고 학교를 사그럽게 하진 않습다.”

남들은 편안한 삶을 준비해야할 나이라 평하지만, 신재경씨에겐 아직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다.

“내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자랑할 거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담배를 끊은 것. 두 번째는 일본 대학을 국비 장학생으로 다닌 것인데 이제 자랑거리를 세 가지로 늘리려고 해요. 학교를 다니면서 HSK 6급을 따려는 건데 조만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강수빈 기자

www.jpdc.co.kr

Pure Enjoyment!

1950m 신비로운 한라산의 숨결이 느껴지는 깊은 맛
지금 느껴보세요!

제주삼다수와 제주산 맥주보리가 어우러진
전통 프리미엄 맥주 제스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제스피 영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길 44번지 1층 (구 신제주종합시장)
문의 : 064) 780-3792, 713-7744

세계7대자연경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제주